

정보문화기술입문 과제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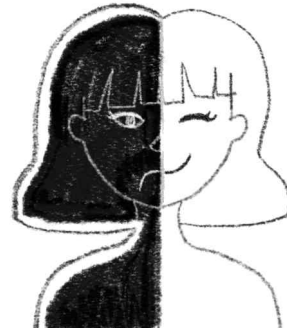
2020.12.21

2018-13708
심리학과 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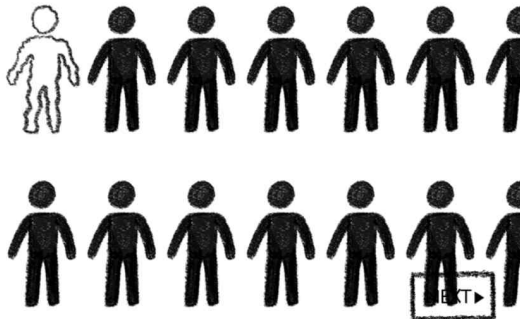
NEXT▶

[그림1]



NEXT▶

[그림2]



[그림3]



[그림4]

이번 과제로는 최근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으로 혼란스러운 저의 내면 세계에 대한 짧은 인터랙티브 에세이를 만들었습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하고, 진짜 '나'를 정의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도 이 고민은 해소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의 고민 과정을 짧게나마 과제에 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P5.js showcase에 있는 Kat Zhang의 'Room/Me'라는 작품을 보고 저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 적합한 레퍼런스라는 생각이 들어 기획을 할 때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에세이는 가볍지 않지만, 우울하지도 않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림 리소스는 직접 그렸고, 색은 흑과 백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I am complex."라는 문구로 시작하며, 이는 "나는 복잡한 사람이다." 또는 "내 머릿속이 지금 복잡하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러스트를 통해서는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힌 생각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랜덤 함수로 머릿속 생각 이미지를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I am ambivalent."라는 문구가 나타나며, "나는 이중적이다." "나는 양면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제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하였고, 진짜 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담아 이를 일러스트로 나타내었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Still, I am ordinary."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제가 앞서 했던 두 가지의 고민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수업시간에 배운 array를 활용하였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 역시 car array를 참고하였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Who are you?"라고 반문하며 저의 에세이를 본 이용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카메라 거울을 응용하여 가운데 카메라만 컬러로 나오고, 가장자리에 있는 4개의 카메라는 흑백으로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Room/Me에서는 일러스트의 경계가 계속 직선-곡선을 왔다갔다 하며 흔들거리는 효과를 주는데, 저도 스테이지 3에서 이런 느낌을 구현하고 싶어 일러스트를 ordinary0과 경계선이 흔들린 ordinary1로 두 개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draw함수에서 흰 배경이 계속 호출되는 것을 막으면서 완벽하게 구현하는 방법을 잘 찾지 못해 아쉽습니다.

참고 자료

기획 Room/Me – Kat Zhang <https://kikikikat-room-me.glitch.me/>

배경음악 LAKEY INSPIRED - Me 2 (Feat. Julian Avila) <https://youtu.be/bnNLLgoutno>